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기업들 실적 좋아... 경제 보호막 역할한다
- Bloomberg: 임대료가 미국과 선진국들 인플레이의 마지막 걸림돌

[미국 금융]

- Bloomberg: 강한 달러가 글로벌 교역 반등에 역풍
- Bloomberg: S&P 500, 4일간 상승 이후 후퇴 기미
- NYT: 투자사 Archegos 이끌었던 한인 빌 황, 심리 시작

[미국생활]

- Bloomberg: 뉴욕시 주민 24명 중 한명이 백만장자
- Bloomberg: 작년에 소도시로 이주한 대도시 거주자는 기록적 수치

[유가]

- Bloomberg: 미 원유 비축량 감소... 유가 회복

[전기차]

- WSJ: 한국, 중국 의존 탈피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70억불 지원
- WSJ: 지나치게 높은 전기 트럭 운영 비용 ... 기업들 고민 깊어진다

[인공지능]

- WSJ: Microsoft, AI 관련 위스콘신에 30억 달러 이상 투자

[주택]

- Bloomberg: 미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 금리,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Uber, 매출 증가 불구하고 적자 전환
- Bloomberg: 인텔, 매출 감소 ...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 탓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Profits Are Booming—and That's Shielding the Economy

미 기업들 실적 좋아... 경제 보호막 역할한다

- 4월에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조사 FactSet에 따르면 S&P 500에 포함된 회사들의 올해 1분기 주당 실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5.2% 상승했다. 3월 말의 예상치였던 증가율 3.4%보다 높았다.
- 2분기 예상치도 주당 실적도 당초 3월 말 예상치 9%에서 9.8%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Rents Set to Be Last Domino to Fall in Global Inflation Battle 임대료가 미국과 선진국들 인플레이의 마지막 걸림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경제에서 치솟는 임대료가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 통제 노력에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소비자 물가지수의 큰 폭을 차지하는 주택 비용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급등하다 보니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더 요구하게 되면 물가는 계속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
- 이와 관련 금융 시장에 따르면 미 연준처럼 금리 인하를 연기하거나 호주처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he Strong Dollar Poses Headwinds for Global Trade Rebound

강한 달러가 글로벌 교역 반등에 역풍

- 달러 강세는 단지 금융 시장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교역을 회복하는데도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 관련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수출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 유일하게 정상 이상의 수치를 보인 항구는 로스 앤젤레스 항구다. 올해도 봄볏으며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의 4분의 3이 수입품이었다.
- OECD의 이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2.3%로 글로벌 예상 GDP 전체 증가율 3.1%에 미달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 다른 통화에 비해 달러 강세는 미 수입품 가격을 낮추지만 수출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엔화가 달러 대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등은 수입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P 500 Runs Into Roadblock After Winning Streak S&P 500, 4일간 상승 이후 후퇴 기미

- 4일간의 상승으로 3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장이었던 미 주식에 대한 월가의 열기가 줄어들고 있다.

- 이번 주에 지수 5,200까지 잠깐 갔던 S&P 500이 후퇴했다. 현재 5,170.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대형 종목에서 손실을 주도했다. 인텔 주가도 떨어졌는데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이후에 매출 전망치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우버 또한 실망스런 매출로 주가가 떨어졌다.
-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최근의 반등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Chist Montagu가 이끄는 팀은 메모에서 “신규 매수 포지션이 약간 늘어나고 위험 선호도가 약간 증가하는 등 열의가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NYT: Bill Hwang, Whose Firm Archegos Collapsed in 2021, Is About to Go on Trial

투자사 Archegos 이끌었던 한인 빌 황, 심리 시작

- 3년 전 수십억달러의 투자사인 Archegos Capital Management사가 경고 없이 붕괴하면서 일부 월가 은행에 큰 피해를 주고 회사 책임자인 빌 황이 연방 범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주식 투자를 위한 과도한 레버리지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
- 60세인 그는 증권 사기, 시세 조작 등 11건의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유죄로 판결 받으면 종신형도 가능한 상황이다.

NYT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One Out of Every 24 New York City Residents Is Now a Millionaire

뉴욕시 주민 24명 중 한명이 백만장자

- 뉴욕시 주민들이 거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3조 달러를 초과한다.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뉴욕시에는 천 35만명의 백만장자가 있는데 어떤 도시보다도 많아 10년 전에 비해 48% 증가했다. 2013년에 36명당 백만장자가 1명이었으나 지금은 24명당 한명꼴이다.
- 구체적으로 수십억 부자는 60명, 1억불 이상 자산가는 7백44명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Record Wave of Americans Fled Big Cities for Small Ones in 2023

작년에 소도시로 이주한 대도시 거주자는 기록적 수치

-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로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으로 이주한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 버지니아 대학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작년에 29만4천명이 미국의 작은 타운이나 시골로 이주했다. 지난 1970년 이래로 큰 도시로 옮겨간 숫자를 처음으로 초과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유가]**Bloomberg: Oil Erases Losses as Stockpile Decline Signals Tighter Market****미 원유 비축량 감소... 유가 회복**

-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감소해 관련 실물 시장이 타이트하게 나타나면서 오일 가격이 회복되었다.
- 서부 텍사스중질유는 원유 재고량이 1백36배럴 감소함에 따라 배럴당 78달러를 웃돌면서 거래되었다.
- 원유는 당초 지난 4월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중동 긴장에 따른 지정학적인 프리미엄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WSJ: South Korea Plans \$7 Billion Push to Pivot EV Battery Industry Away From China****한국, 중국 의존 탈피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70억불 지원**

- 한국 정부는 중국 의존도의 공급망에서 탈피하고 미국의 관련 교역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70억불을 쏟아붓는다.
- 한국 정부는 수요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71억4천억 불을 투자하여 미국의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용자와 세금 감면이다.

WSJ 기사

WSJ: Companies Are Balking at the High Costs of Running Electric Trucks**지나치게 높은 전기 트럭 운영 비용 ... 기업들 고민 깊어진다**

- 전기 트럭의 구매 비용은 디젤 트럭보다 약 3배 정도 비싸다. 이에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전기 트럭은 비쌀 뿐만 아니라,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 디젤 트럭의 주유 간 주행거리에 상응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립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재충전에도 최소 몇 시간이 걸린다.
- 한편,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은 향후 10년간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전기 트럭을 판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트럭 운전사들이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여러 규제를 도입했다.
- 지역 및 전국 무역 단체는 해당 규칙과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달 초 미국 트럭운송협회는 “이러한 의무는 대부분의 트럭 운송업체에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Microsoft to Invest Over \$3 Billion to Build AI in Wisconsin Microsoft, AI 관련 위스콘신에 30억 달러 이상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스콘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마운트 플레즌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 Brad Smith와 함께 이러한 AI 투자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에는 33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AI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의 AI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공개한 대규모 투자 중 가장 최근의 발표이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Falls for First Time Since March 미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 금리,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미국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다. 이에 주택 구매자들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택 구입 및 재융자 신청이 늘어났다.
- 수요일에 발표된 모기지 은행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5월 3일로 끝나는 주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11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7.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주 연속 상승하여 7%를 훨씬 상회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

-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주택 구입 및 채용자를 포함한 MBA 신청 지수는 2.6% 상승했으며, 채용자 지수는 4.5%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Uber Swings to Loss Despite Rising Revenue **Uber, 매출 증가 불구하고 적자 전환**

-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지난 분기에 적자로 전환했다. 차량 서비스 및 배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과 지분투자 손실이 실적에 부담을 준 것.
- 이는 우버가 이번 분기에 또 다른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 기대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 우버는 작년에 상장 기업으로서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 우버의 CEO Dara Khosrowshahi는 월가의 환심을 얻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백 개의 일자리 및 운전자 보너스를 삭감해 왔다.
- 수요일 실적 발표 이후, 우버 주가는 5.5% 하락했다. 우버는 올해 들어 6억 5천4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FactSet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애널리스트들은 4억7천4백만 달러의 수익을 예상했으며, 우버는 이전 3개 분기에서 이익을 보고했었다.

WSJ 기사

Bloomberg: Intel Sees Revenue Falling Below Midpoint on US Huawei Ban **인텔, 매출 감소 ...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 탓**

- 인텔의 2분기 매출이 예상치의 중간 수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것.
- 수요일 성명을 통해 인텔은 “매출은 이전에 안내된 125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이지만, 중간 수치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 2024년에도 매출 및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화요일 미국은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가 인텔과 퀄컴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라이선스를 취소하여,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러한 라이선스 철회가 화웨이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미국 칩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50여년 배당없는 버핏의 버크셔..."주가 상승이 최고의 환원"

신영증권 "한국시장, 회사와 주주간 신뢰·투명성 지향해야"

미국의 유명 투자자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50년 넘게 배당을 안 했지만, 주주의 '충성도'는 매년 높아진다.

박소연 신영증권[001720] 연구원은 지난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를 참관한 후 이러한 현상에는 투자자와 기업 간 상호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8일 분석했다.

버크셔는 1967년 소액 배당을 마지막으로 57년간 '무배당 정책'을 펼쳐왔다. 배당이 일상화된 다른 미국 기업들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